

【논 문】

한국 근대소설과 마적 — 윤백남의 『사변전후』를 중심으로 —

서재길*

차례

- I. 머리말
- II. ‘마적’과 ‘군인’, 그 흐려진 경계
- III. ‘화북 자치정부’ 구상과 ‘대아세이주의’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윤백남의 『사변전후』에 나타난 마적 표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만주’와 ‘마적’에 대한 식민지 대중의 무의식과 욕망을 살펴본 것이다. 『사변전후』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시기의 만주와 화북을 배경으로 하여 이곳에서 활동한 조선인 마적들의 활약상을 통해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과 화북 자치정부의 필요성을 그리려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적으로 활동하던 주인공들이 만주국 건국 이후 화북 지역으로 거점을 옮긴 뒤 천진에 화북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거사를 도모하다 좌절하게 된다는 설정이다. 이는 만주국에 뒤이은 새로운 괴뢰국가를 이 지역에 세우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관동군에 의한 ‘화북 분리 공작’을 소설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개 마적단 우두머리에 불과했던 왕명 일파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격변 속에서 화북을 자신들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무장 조직인 ‘청방’의 힘을 빌어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구한다. 일본 관동군에 의해 만주국이 건국된 것처럼, 전향 사회주의자 출신의 마적 왕명을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 조선인이 일본인을 대동하여 ‘대아세아주의’의 기치 아래 중국의 혁명을 지도한다는 설정인 것이다. 이는 만주사변 이후 조선의 전향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식민지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해서 무자각적인 채로 아시아 대서양 제국주의라는 구도 속에서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유도비아적 광역권’이라는 비전과 전시광역권론 및 국가개조론에 대해 가졌던 매혹과 사상적 전회를 대중적 감각 속에 서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윤백남, 사변전후, 마적, 화북 자치정부, 대아시아주의

I. 머리말

몇 해 전 통영시에서 후원하는 청마 유치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친일’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그의 시 「수(叟)」가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비적(匪賊)’이 ‘항일 운동 세력’을 의미한다는 지적에 행사를 주관하던 통영예총 관계자들이 이 시에 등장하는 주검의 주인들은 단순한 비적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¹⁾ 자기 고장 출신의 명망 있는 시인을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지역사회의 취지도, 일제와 만주국에 대한 유치환의 ‘협력’의 혐의를 분명히 하려는 시민단체나 학자들의 고충도 충분히 수궁이 가는 일이지만, 아쉬운 것은 ‘친일’ 문제가 늘 그러하듯 이 논쟁 역시 유치환과 「수」의 친일 여부에만 매몰되어버렸다는 점이다.

1) 유치환 시 「수」의 친일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글로 전갑생, 「유치환 시 <수>와 ‘비적」, 『경남도민일보』, 2004.10.1.~5; 전갑생, 「유치환 ‘수’의 ‘비적’은 항일군 확실」, 『경남도민일보』, 2007.9.5을 들 수 있다. 반면 「수」의 친일 문제를 반박한 글로는 정해룡, 「청마의 시 「수」 새롭게 들여다 보기—친일은 가라」, 『한산신문』, 2004.7.9; 문일, 「죽은 시인의 비애」, 『국민일보』, 2004.9.24.를 들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마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2007년 12월에 통영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여섯 명의 학자들이 찬반 양론을 펼쳤다. 한편 김재용은 「수」의 친일 여부는 판별하기 어렵지만 「전야」와 「북두성」의 친일성과 협회화 활동 등 친일 혐의는 부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도 친일이 그의 문학 전반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김재용, 「유치환의 친일 행적들」, 『한겨레』, 2004.8.7).

사실 「수」에 묘사되고 있는 ‘비적’이 누구인지 실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들이 일본과 만주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효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를 곧바로 ‘친일’로 연결하는 논법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늘 현실 그 이상의 것을 담으려고 하는 문학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텍스트를 현실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0세기 초반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유형의 ‘비적’의 친일 여부를 명료하게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항일반만(抗日反滿)’을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실천했다는 이유로 모든 ‘비적’들의 반사회성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세기 초 조선인, 나아가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 ‘만주’와 ‘만주국’이 어떤 의미였는지, 만주에서 활동했던 ‘비적’, 때로 ‘마적’이라 불리던 이들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가 아닐까 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문학에서 마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다만 근대 중국과 만주에서의 마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일단 역사학계의 작업에 맡기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면서,²⁾ 주로 한국 근대소설에서 마적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유치환의 「수」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문학에서 비적 혹은 마적을 묘사한 작품은 꽤 많다. 일찍이 『추월색』을 비롯한 개화기 신소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마적에 대한 표상은 1920-30년대 이른바 ‘딱지본 소설’³⁾에서는 일종의 유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민지 시기에 제작된 <사랑을 찾아서>(1928), <망루의 결사대>(1943)와 1960년대에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만주 웨스턴’, 그리고 최근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에 이르기까지 마적은 한국 영화가 즐겨 이용하던 소재이기도 했다.

2) 渡邊龍策, 1964, 『馬賊：日中戰爭の側面』, 中央公論社(개정판, 2013); 澁谷由里, 2004, 『馬賊で見る「滿洲」：張作霖のあゆんだ道』, 講談社;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개정판), 동아대학교출판부.

3) 딱지본 소설에 나타난 만주와 마적 표상에 대한 논의로 정종현, 2007,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33, 참조.

그러나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만주가 가장 문제시되었던 1930년대에서 1940년대의 시기에 발표된 소설에서는 마적을 본격적으로 그린 작품이 의외로 드물다. 1920-3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딱지본 소설 몇 편을 제외하면, 윤백남의 신문연재소설 『사변전후』⁴⁾와 2003년 새롭게 발굴되어 소개된 한설야의 일본어 소설 『대륙』⁵⁾ 정도가 그나마 마적을 본격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런데 “마적에게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부여”⁷⁾ 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대륙』의 경우 자료가 공개되고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이래로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었었던 것과 달리,⁸⁾ 윤백남의 『사변전후』의 경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외면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다.⁹⁾ 이는 영화, 야담, 라디오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그 초석을 낳은 인물¹⁰⁾로 평가

4) 1910년대의 연극운동가에서 1920년대 극작가 및 감독, 1930년대 역사소설 및 대중소설 작가로 평가받는 백남 윤교중(1888-1954)은 영화 제작을 준비하던 1936년에 돌연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한다. 이후 그는 몇 차례 조선을 드나들기는 하였지만, 해방이 되던 해까지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을 앞둔 시기에 귀국하여 조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변전후』는 그가 만주로 이주한 직후에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93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되다가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7년 10월 3일자(221회)를 끝으로 일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38년 3월 2일부터 다시 연재되어 5월 2일(268회)에 마무리가 되었다. 속재(續載)를 알리는 사고에는 “작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매일신보』, 1938.3.19 참조).

5) 김재용, 2003, 「새로 발견된 한설야의 소설 『대륙』과 민주 인식, 『역사비평』 여름호.

6) 그 외에 마적이 소재로 등장하는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안수길의 『효수』 등 몇몇 작품의 경우 마적을 주요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7) 손유경, 2009,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42, 207쪽.

8)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민족문화사연구』 24 : 윤대석, 2006,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고명철, 2008,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서사’, 『한국문학논총』 49 : 서영인, 2009, 「만주 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 : 이기영, 한설야의 만주 서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 이경재, 2010,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소명출판; 서영인, 2010, 「만주 서사와 (탈)식민의 타자들, 『어문학』 108 : 이행선, 2012, 「‘교양’ 식민화된 제국 국민, 그 계층 질서의 척도—한설야의 『대륙』, 『인문과학연구논총』 33 등을 들 수 있다.

9) 이 작품을 구체적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논문에서 정중현은 이 작품을 만주국과 일본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인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위계화함으로써 “당대 조선인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일종의 환타지”(정중현, 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28, 237-239쪽)로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주인공이 마적에서 혁명가로의 전신(轉身)하는 과정, ‘대아세아주의’가 발화되는 공간이 ‘만주’가 아닌 ‘화북’이라는 점, 작품 후반부에 나타난 민족의 위계적 재편성과 화북 자치정부 구상 사이의 관련성 등에 초점을 두려 한다.

받고 있는 윤백남에 대한 문학사 쪽에서의 평가가 매우 박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 작품에 나타난 이념이나 사회성을 중시해 온 그 동안의 연구 경향의 탓도 있었지만, 몇 편의 회곡을 제외하고는 대표작이라고 내세울만한 뚜렷한 성취를 거둔 작품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이 ‘신문연재소설=대중소설’이라는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점도 연구의 장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작품은 1910년대 이후 한국소설이 쌓아올린 성취라는 면에서 볼 때 문학적 가치와 함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딱지본 소설’과 마찬가지로, ‘문학성’을 따지는 논의와는 별개로 일간지가 몇 안 되는 당시에 신문소설로 연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소설의 작가인 윤백남의 대중예술가로서의 명망과 더불어 이 작품이 당대 사회에서 대중문화 상품으로서의 소비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대중예술에서의 만주 표상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마적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실제로 마적이 어떠했나 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대 식민지 대중들에게 만주와 마적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었는가를 통해 대중의 무의식과 욕망을 읽어내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마적’과 ‘군인’, 그 흐려진 경계

신문연재소설이 대체로 그러하듯 이 소설 역시 잘 짜여진 플롯을 취하고 있는 본격소설과 비교할 때 매우 느슨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전체 작품의 규모에 비해 방대한 인물이 끊임없이 등장하여 서사가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만주사변’을 전후로 하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전개되는 과정 및 장학량을 필두로 중국의 군벌들 사이

10) 백두산, 2013, 「식민지 대중문화의 기획자」 『윤백남 선집』, 현대문학.

에 벌어지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묘사한 역사적 사실을 그린 ‘역사적 서사’ 부분과 두 명의 조선인이 만주에서 조선인의 권익을 위해 싸운다는 내용을 담은 ‘허구적 서사’로 크게 둘로 나뉘며, 소설의 서사는 역사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가 교차로 반복되면서 전개된다. 이처럼 산만한 구성에 새로운 인물이 계속 등장하여 끊임없이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딱히 주인공을 특정하기 힘들지만, 작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김낙준’과 중간부 즈음에 등장하여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추정되는 ‘왕명’ 두 사람 정도로 주요 인물을 압축할 수 있다.

길림성의 우수둔 팔도하자의 조선인 집단부락에서 개척 농민으로 있던 김낙준은 조선인을 탄압하고 아내를 빼앗아간 중국인 지주를 죽이고 도망쳐서 ‘모당’에 가입했다가 산채 생활에 환멸을 느낀 뒤 탈출한 뒤 원래 알고 지내던 왕명을 찾아가서 그의 수하에서 충성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왕명은 한 때 백두산 동록에 마적 출신 두목인 왕호가 만든 산채의 부두목 노릇을 하다가 만주사변 발발 후 600여 명의 “길림군 별동대”¹¹⁾의 대장이 되어 마점산(馬占山)과 정초(定超)의 토벌에 참여하면서 만주국 건설에 협조하는 인물로 설정되고 있다. 만주사변 직후 산채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항일 반만의 기치를 든 마점산 부대와 싸우기 위해 길림군 별동대를 이끌고 하얼빈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와중에 김낙준은 비적 방지(芳芝) 부대의 공격을 받아 이들의 산채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뒤 구사일생 끝에 천진에 있는 왕명을 다시 찾아온다.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 전역뿐만 아니라 열하성과 화북(華北) 일부까지 일본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된 1935년 무렵, 왕명은 천진에서 자신을 따르는 김낙준, 김승우, 빠이란, 노자끼 등 정예만으로 모종의 정략을 꾸민다. 경찰과 철도 등 기간시설을 접수한 뒤 ‘청방(靑幫)’의

11) 윤백남, 1940, 『사변전후』, 영창서관, 289쪽. 이 작품은 『매일신보』 연재가 끝난 뒤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신문연재본과 단행본 사이에는 일부 맞춤법 표기가 달라진 것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신문연재본의 오식이 단행본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나타난 경우도 발견될 정도이다. 앞으로 『사변전후』의 인용은 단행본의 인용면수만을 표시하되, 오식이 분명한 경우 [] 속에 고쳐 썼다.

도움을 받아 ‘화북 자치정부’를 수립하려던 왕명의 시도는 결국은 모처의 비협조로 그 뜻이 좌절되고 만다. 뜻을 이루지 못한 왕명은 상해로 망명하지만 그를 반대하던 세력의 린치로 결국 숨을 거두게 되고, 김낙준과 빠이 란은 여객선을 타고 대련으로 떠나면서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

이상의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만주사변을 전후로 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마적을 등장시키면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마적은 장작림과 마점산 등 ‘녹림(綠林)’ 출신의 군벌들, 우리가 흔히 ‘토비’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토착 무장 세력, 그리고 일본과 만주국에 반기를 든 이념적 무장세력 등으로 대별된다.¹²⁾

우선, 첫 번째 유형의 마적은 장작림 군벌과 그와 협조, 대립하는 다양한 군벌들로서, 역사적 서사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녹림에서 나와 동북 삼성을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치세력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적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이들 녹림 출신 군벌들의 정치적 무능함, 도덕적 타락, 기회주의적 본성이 전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만주국 건국의 필연성과 일본제국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마적은 조선인 부락을 습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닥치는 대로 인명을 살상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지주들과 모략하여 팔도하자의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거나, 만보산 삼성보의 조선인 부락과 수로 공사를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에 부합하는 유형의 이들 마적들은 식민지기의 다른 작품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의 마적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장학량 정부 이후 심해진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정책 속에서 마적에 의한 조선인 습격과 약탈이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12) 이 외에도 ‘대도회(大刀會)’나 ‘홍창회(紅槍會)’와 같은 전통적인 비적 집단, 나아가서는 ‘청방(靑幫)’과 같은 전통적인 비밀결사도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다. 이중 ‘청방’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있다(55쪽, 132쪽).

이들과는 달리 뚜렷한 이념이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활동하는 마적의 부류, 당시의 권력의 용어를 빌면 ‘공비’에 해당되는 부류도 있다. 길림 동북 노흑구(老黑溝) 북쪽 소백산(小白山) 기슭에 세워진 ‘지도원’ 최지섭의 산채는 “조선××군의 근거지의 하나”(322쪽)로 그려지고, 하얼빈 공격 중 기습을 받은 김낙준이 잡혀간 밀림 속에는 “공산비”(308쪽)의 산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편, 팔도하자의 조선 농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중국인 지주와 관헌은 조선 농민들이 이청천의 ‘조선독립군국민부’와 내통했다고 모략을 꾸미는데, 여기에서 이청천이 이끄는 조선인 무장투쟁 세력은 ‘비적’의 한 부류로 묘사되고 있다.¹³⁾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분류는 매우 상대적이어서, 실제로는 마적 집단이 항일반만 의용군으로 전신(轉身)하는 경우(349쪽), 혹은 이와 반대로 마적이나 장학량 부대의 패잔병이 만주국 정규군이 되는 경우(152쪽), 심지어는 이렇게 편성된 정규군의 군복을 입은 채로 조선인을 비롯한 양민부락을 습격하는 등 마적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349-340쪽)가 비일비재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의 두 주인공 왕명과 김낙준이 마적에서 만주국군으로 전신한 대표적인 경우라면, ‘눈강 전투’에 등장하는 마점산과 그 휘하 부대는 마적에서 반만 의용군으로 전신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낙준이 최지섭의 산채에서 나와 백두산 산채에서 왕명을 만났을 때 그는 마적 두목 왕호의 수하에서 장학량에 맞서기 위한 군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왕명은 김낙준과 함께 길림군 별동대를 조직하여 마점산 부대를 공격하는 전위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두목 왕호의 경우 원래 “산동 사람으로 상당한 문벌이 있는 집의 아들”(142쪽)이었으나 아버지가 제남(濟南) 태수의 뇌물 요구를 따르지 않자 파륜죄(破倫罪)

13) 흥미로운 것은 김낙준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중국인 ‘공산비’의 산채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젊은 인테리 품격”(309쪽)을 가진 비수(匪首)가 영도하는 이들 마적들은 “주의(主義)에 굳셀뿐만 아니라, 항만(抗滿), 항일(抗日)이 그들의 유일한 강령인 이만큼, 단순히 금전만을 목표로 하는 비적과는 같이 논할 수 없”(305쪽)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 수감되어 옥사하자 원한을 품고 유력한 산동 마적의 수하로 들어가 제남을 습격하여 태수를 암살한 뒤 만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그려진다. 청말민초 시기 가림주구 때문에 권력에 반기를 들고 마적이 된 양민이 이제는 외세에 의해 세워진 ‘괴뢰국가’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주인공 김낙준과 왕명의 경우 다양한 마적 그룹에 몸을 담으면서 사상적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인 지주를 죽이고 도망친 뒤 김낙준은 어찌어찌해서 최지섭의 지도하에 있는 “어느 당”(132쪽)으로 끌려들어가지만 환멸을 느껴 산채를 탈출한다. 이처럼 “열김에”(133쪽) 모 당의 일원이 되었다가 이들의 “애욕 갈등의 추태”(133쪽)에 환멸을 느끼고 전향(?)하는 김낙준과는 달리 왕명은 매우 복잡다단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작품의 거의 마지막에 밝혀지는 바 그는 “미미한 출신으로 어느때는 땅꾼 가운데에 들어가 그들의 불쌍한 자제를 가르치고, 어느때는 유치장 마루판 위에서 불운을 씨부리고, 어느때는 멀리 해삼위 감옥에서 사형(死刑)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파란이 중첩한 반생을 가진 사람”(584~585쪽)이다. “해삼위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 있다가 반동분자란 지목으로 옥에까지 가쳤던”(326쪽) 경력으로 미루어보건대 그는 말하자면 전향 사회주의자로서, “이 만주 땅에서 횡포를 자행하는 장학량의 군벌을 타도(打倒)할 생각”(152쪽)으로 절치부심하면서 마적 부두목 노릇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장학량, 마점산 등 반만 군벌들을 토벌하기 위한 별동대를 조직하여 하얼빈을 공격하는가 하면,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만주에서 벗어나 천진을 거점으로 화북 차치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사회주의자에서 마적으로, 괴뢰국가의 침병 노릇을 하다 다시 혁명가를 꿈꾸다 결국 좌절하는 왕명은 이 소설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이 만주와 대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적 무의식’ 혹은 ‘제국주의적 주체성’을 대리 표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읽다보면 앞에서 편의상 나누었던 마적

혹은 비적의 여러 유형들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만주 특유의 역사에서 비롯된 비적들의 특성상 비적과 정규군인들 사이에 상호 교환성이 존재하고, 만주국군의 근간이 비적 출신 군벌 장군들과 그 휘하 군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¹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는 실제로는 비적이나 정규군에 대해서도 친일/친만과 반일/반만을 명료하게 가르는 일도 기록하지 않다.¹⁵⁾ “오족협화의 정신 밑에서 왕도락도를 건설하자는 신 만주국의 건설 정신”(294쪽)을 표방하는 김낙준과 왕명이 비적에게 습격당한 조선인 마을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한풀이 삼아 “길에서 만나는 놈이란 놈은 모조리 죽이”(295쪽)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장면, 화북 자치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해 마약 밀수범을 습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등이 결코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Ⅲ. ‘화북 자치정부’ 구상과 ‘대아세아주의’

『사변전후』는 기본적으로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시기에 만주와 화북을 무대로 하여 ‘오족협화’와 ‘왕도정치’를 이념으로 한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과 1935년을 전후로 한 시기 화북 자치정부의 필연성을 그리려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인의 자치를 추구하는 선의 축과 그 실현을 방해하는 외국 세력 및 장개석, 장학량의

14) 한석정, 2007, 앞의 책, 75쪽.

15) 이처럼 비적과 만주국군, 반만항일 무장세력 사이에 상호교환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유치진의 『수』에서 묘사되고 있는 비적이 ‘반만항일’의 비적이었을 역사적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를 친일협력의 텍스트로 평가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치환의 친일 행적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텍스트에 한정할 경우, ‘효수’라는 반문명적인 ‘律’의 ‘원시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비극적 역사가 낳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이 시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정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정부라는 악의 축 사이의 선악 대립을 명료히 하면서, 1931년부터 1935년에 이르기까지 신문 지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법한 굵직한 사건들을 배경에 두고, 이러한 역사적 격변 속에서 만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상주의적 공동체를 추구하던 다양한 부류의 인물 군상을 중형으로 배치하고 있다. 산만하고 느슨한 통속소설적 구성 속에서도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자면 역시 왕명이 구상한 화북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거사와 그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왕명은 1931년 겨울 하얼빈의 마점산 부대의 토벌을 완수한 뒤 한동안 서사의 전면에서 사라져 있다가, 몇 년 뒤인 1935년 천진 조계의 ‘오리온’이라는 카페에 육군 소좌의 군복을 입고 등장한다. 이 카페에서 그의 부하인 일본인 노자끼, 식민지 조선 출신의 혁명가 김승우 등과 더불어 왕명은 모종의 책략을 꾸미는데 그것은 화북지역에 자치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자끼가 왕명에게 쓴 편지가 댄서인 ‘빠이란(白蘭)’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하지만, 왕명이 조선인인 것을 알게 된 빠이란이 이 사실을 왕명에게 알려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 과정에서 빠이란이 팔도하자 마을에서 중국인 경찰에게 끌려간 어린 조선 처녀 ‘아기(兒只)’였던 것이 밝혀진다. 또한 동생을 검탈하려던 중국인 경찰을 혼내주었다가 잡혀가 치치하얼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용택은 여동생 빠이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¹⁶⁾ 이리하여 천진 법조계(法租界) 국민대반점에서 왕명, 노자끼, 김낙준, 하상화자(河上花子) 그리고 용택이 남매의 여섯 사람은 용택의 탈옥을 환영하는 모임을 갖는데, 왕명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온 용택에게 자신의 구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왕명이

『만주국은 이미 건설되었거니와, 장차 이 북지 일역의 민중을 위하여는 우리의 손으로 그네들의 이상향(理想鄉)을 만들어주는수 밖에 우리의 정치

16) 여성 스파이물의 주인공과 같은 빠이란의 모습은 일정 부분 한설야의 『대륙』에 나오는 술집 마담 유오락 및 중국인 여성 마려와 유사한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적 욕망을 피볼 커다란 무대는 이 화북 밖에 없는 것이니』

라는 말을 듣고, 그 사업의 윤곽만은 짐작하였다.

미상불 짧은 피가 끊었다.

기위 죽을뿐 아니 죽었던 목숨이니, 왕명을 위하여 그 대사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그것이 얼마나 지찌하루 토옥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뜻있는 일이나.

이렇게 그는 심중에 결심하는 바가 있었다. (중략)

화북 일대에 연거퍼 발생하는 수해는 수천만 농민으로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게 하되, 관헌은 군비 징발에 영일이 없어 농민들의 곤궁을 돌보지 않는다. 정부에 호소코자하나 화북 정권은 조령모개의 변화와 요인의 기회(起壞)가 심하여, 누구를 중심삼아야 옳을지 몰랐다.

이리하여 백성의 원차(怨嗟)의 소리는 차차 높아갔다.

(537~539쪽, 밑줄은 인용자의 것임, 이하 동일)

만주사변을 거쳐 만주국이 건설되고 제정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만주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왕명은 활동 거점을 천진으로 옮긴 것인데 이는 화북에 민중들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함이다. 농민들에 의한 “향현(香縣) 운동은 완전히 실패”(539쪽)했다고 판단한 왕명은 “자치운동의 [핵]심은 물론 지방 농민 대중을 움직임에 있다 할지라도, 운동의 계단적 첫 목표를 도시에 두어서 먼저 도시의 행정기관부터 차고 앓을 필요가 있다”(540쪽)고 생각하고, 거사(쿠데타)를 일으켜 천진의 주요 기관을 점령한 뒤 이를 기반으로 화북 지역에 자치정부를 수립한다는 극도의 모험주의 노선을 추구한다. 고북구의 마약 밀매상을 습격하여 군자금 마련한 이들은 천진 중국인 거리 민중도서관에 ‘화북농민자치운동본부’를 간판으로 내건 뒤, 보안사령부, 철도국, 국민당 주비처, 공안국, 헌병대, 법원을 접수하는 한편, 감옥을 점령하여 죄수를 출옥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보안사령부와 철도국 등이 접수되고, 차량 및 철도 운수 쪽을 장악하고 있는 청방도 자신의 조직원인 김승우가 주도한 이 계획에 도움을 주기로 하여 처음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의외로 어

는 방면의 권고”(585쪽)가 운동을 간섭하게 되면서 청방의 협조가 좌절된다. “시킨 사람과 지금 간섭하는 방면과는 방면이 다르”(583쪽)기 때문인데, 왕명의 부하들이 “시기로 이 거룩한 운동을 희생시키는”(583쪽)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지만 왕명은 “일본제국의 신민인 이상, 우리는 제국의 대외 정책에 순응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585~586쪽)라는 말로 이들을 위무한다. 천진을 거점으로 한 거사의 실패 이후 왕명은 망명하다시피 상해의 조계로 옮긴 후 다시 “북지 청방 오십만의 당원을 움직일 방도와 대아세아주의연맹의 정치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계획”(618쪽)으로 상해 정계의 거물들 만나고 홍방의 모임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반대 세력으로부터 린치를 당하게 된다. 농촌계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거쳐 마적의 일원이 되었던 왕명은 마지막에는 혁명가가 되어 “대아세아주의 만세”(625쪽)를 외치면서 숨을 거두고 만다. 그렇다면 왕명이 생각한 ‘화북 자치정부’란 무엇이고 그 좌절이 의미하는 바는 또한 무엇인가.

이 소설에서 왕명이 구상하고 있는 ‘화북 자치정부’란 관동군 및 ‘지나주둔군(支那駐屯軍)’에 의한 ‘화북분리공작’ 곧 ‘기동방공자치정부(冀東防共自治政府)’를 연상케 한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동북 3성을 순식간에 점령한 관동군은 곧바로 전선을 확장하여 1933년 2월 열하성을 점령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이속고 산해관을 넘어 당시 북평(北平)으로 불리던 북경까지 넘보고 있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장개석 정부는 일본과의 정전교섭을 시작하여 결국 일본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당고정전협정(塘沽停戰協定)을 맺게 된다. 화북 북쪽지역에서 국민당 군의 철수 및 일본군의 장성(長城) 이북으로의 철수를 통해 기동(冀東, 河北省 동북부)에 완충지역을 두게 되는 이 협정은 군사협정이라는 ‘현지해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래의 군사적 대립을 일단락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주국의 실제적인 승인과 만주국 영토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후 1933년 9월 일본 외상에 취임한 히로다 고키(廣田弘毅)가 ‘일화친선’을 제창하여 중일 상호의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등 중일 간에 큰 충돌 없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있었지만, 이러한 친선 무드의 뒷편에서 군부에 의해 ‘화북분리공작’이 행해지고 있었다. 즉 1935년 5월경 친진에 사령부를 둔 지나주둔군이 친진 조계 내에 일어난 일본인 살인 사건과 비무장지대 소요를 구실로 하북성에서 중앙군과 국민당의 철수(河應欽-梅津 협정)시키고, 이어 차하르성(察哈爾省) 내에서 국민당 기관과 송철원(宋哲元) 부대를 철수(土肥原-秦德純 협정)시킨 후, 11월에 은여경(殷汝耕)을 수반으로 하여 ‘기동방공자치위원회’(12월에 기동방공자치정부로 발전)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기동방공자치정부는 화북의 5성(河北, 察哈爾, 綏遠, 山西, 山東)을 장개석의 국민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만주국에 뒤이은 관동군/지나주둔군에 의한 새로운 괴뢰국가의 설립을 의미했다.¹⁷⁾ 일본에서는 ‘북지사변’ 중국에서는 ‘화북사변’으로 불리기도 하는 ‘화북분리공작’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동방공자치정부 곧 화북 자치정부인 셈인데, 이 같은 화북 자치정부 구상이 왕명에게 그대로 전유되어 소설 속의 담화로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변’이라는 모험주의적 방식을 통해 자치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점이다. 화북 각 지역에서 일어난 대중들의 자치운동(실제로는 일본의 모략과 사주에 의한)이 실패로 돌아간 뒤 왕명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구한다. 단기간에 주요 기관을 접수하고 정권 교체를 선언한 뒤 대중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중들의 지지와 조직화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닌 청방과 홍방을 파트너로 삼으려 한다는 점이다.¹⁸⁾ 화북 자치정부 수립이라는 명분으로 왕명이 꾸민 거사에 참가할 것을 요구받은 ‘청방’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여는 장면에서 행해지는 다음과 같은 연설은 매우 흥미롭다.

17) 이상 화북 자치정부에 관한 내용은 小島普治·박원효 역, 1992, 『중국근현대사』, 지식산업사; 이시카와 요시히로·손승희 역, 2013, 『중국근현대사 3, 혁명과 내셔널리즘』, 삼천리; 內田尚孝, 2006, 『華北事變の研究: 塘沽停戰協定と華北危機下の日中關係 一九三二~一九三五年』, 汲古書院; 坂野良吉, 2011, 『華北事變'史'をめぐる諸問題日中全面戦争の淵源』, 『上智史學』 56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8) 소설에서는 “홍방은 상해를 중심 삼아 남지나 일대에 세력이 있고, [청]방은 친진을 중심삼아 북지나 일대가 그 세력 권내였다”(577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당원 간부들중에도 이리하고싶다는것이요, 하나는 이번 자치운동은 일반 대중에게 있는 ○○는 일일뿐더러, 뻔히 불평이 있으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있는 대중을 대신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차지해보자는것인즉, 대중을 벗삼는, 아니 대중 자신이 우리의 정수인 우리 당이 이것을 지지하는것은 이론에 벗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당원이 영수의 하나인즉슨, 그와 협의해서 장래할 자치정부의 간부를 우리의 손으로 추진하여 천하를 우리 당의 손으로 쥐었으면 하는 생각이요, 영국이나 법국 같은 나라에서도 가끔 노동당 정부가 되는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바인즉, 이 화북 오성의 정치는 우리의 손으로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578~579쪽)

뚜렷한 신념이나 지도 이념을 가지지 못한 전근대적 비밀결사에 불과한 청방이 자신을 유럽 국가의 노동당에 비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장악할 욕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녹림 출신으로 동북삼성의 최고 권력자가 된 장작림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화북 자치정부를 도모한 왕명은 마적 생활 시기부터 “장발적(長髮賊) 홍수전(洪秀全)이 남치 산중에서 은자 땃냥의 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할 때, 그가 남경에 도읍하여 십팔년간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제왕이 될것을 확신하고 나섰던가”(152쪽)라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김낙준 역시 왕명의 구상에 “장작림 역시 녹림객(綠林客) 출신이 아니오니까”(153쪽)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청방의 일원으로 설정된 왕명의 부하 김승우는 “주원장(朱元璋)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누르하찌는 어떠한 사람이었든가, 그야말로 왕후장상이 무슨 씨가 있으랴”(584쪽)라며 자신들의 거사를 주원장, 누르하찌에 의한 왕조고체와 비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개 마적의 두목에 불과했던 왕명 일파가 화북을 자신들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표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체적 동력으로서의 ‘청방’이라는 결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¹⁹⁾

19) 실제로 청방은 손문이나 원세개에 의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고, 장개석 역시 청방의 일

왕명의 화북 자치정부 구상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위로부터의’ 혁명에 청방의 조직원은 사실 동원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거사를 주도하는 세력은 조선인을 주축으로 한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이름만 나올 뿐 뚜렷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하상화자나 일본군 출신인 노자끼의 역할은 왕명의 구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그쳐 있을 뿐,²⁰⁾ 사실상 거사의 주축이 되는 이들은 조선인이고 전향 사회주의자 출신으로 마적 부두목을 했던 왕명이 그 중심에 존재한다. 조선인이 일본인과 중국인을 대동하여 중국의 혁명을 선도한다는 제국/식민지의 전도된 구도의 밑바탕에는 화북 자치정부가 실패한 뒤 망명한 상해 조계에서 테러를 당한 왕명이 죽음을 앞두고 외치는 “대아세아주의 만세!”라는 슬로건이 존재한다. 왕명의 입을 통해 발화된 이 ‘대아세아주의’는 만주사변 이후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전시광역권론’, 곧 제국주의적 착취를 부정하는 한편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서 국가사회주의적인 개발, 발전을 논하는 전체주의적 논의를 연상케 하는 바가 있다.

만주사변 발발 이후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일본의 최대 합법 사회주의 정당 사회민주당은 1931년 11월 만주사변을 지지하는 결의를 제출하였고, 공산당 간부들은 옥중 전향 선언을 통해 소련이나 중국공산당과의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국민당 군벌이나 미국과의 전쟁은 진보적인 전쟁으로 전화할 수 있다며 인정했다. 한편 이 같은 ‘좌익판 대아시아주의’는 조선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전향의 논리를 제공하였는데,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원이었다고 한다. 와타나베는 전근대적 무장조직인 비적이나 마적과는 달리 청방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수반되는 갱 조직의 모태가 되었다고 본다(渡邊龍策, 1964, 앞의 책, 48~51쪽).

20) 하상화자는 “청조(淸朝) 모 왕가(某王家)의 딸로서 일찌기 일본서 자라나며 순 일본의 교육을 받은 유명한 여성”(536쪽)으로 묘사되고 있어 숙친왕의 딸이자, ‘만몽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일본의 낭인 가와시마 나니와(川島浪速)의 양녀였던 가와시마 요시코(川島芳子)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여성 스파이 서사의 주인공은 푸이(溥儀) 부처를 친진에서 여순으로 탈출시키는 역할을 했던 ‘동양의 마타하리’ 곧 가와시마 요시코를 표상하고 있는 일본인 하상화자가 아니라 오빠 용택을 만주리의 감옥에서 빼내오는 데 역할을 했던 조선 여성 ‘빠이란’의 몫이었다. 한편 노자끼 역시 ‘모략마적’과 함께 일본의 대륙 침략의 선봉이 되었던 ‘대륙 낭인’을 표상하고 있다.

‘유토피아적 광역권’이라는 비전이 사회적으로 억압 차별받아온 이들의 차별로부터의 해방,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기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²¹⁾ 왕명이 제국/식민지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해서 무자각적인 채로 아시아 대 서양 제국주의라는 구도를 펼치면서 일본인을 지휘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대아세아주의’의 실현을 꿈꾸는 모습은 당시 전향 사회주의자들이 전시광역권론 및 국가개조론에 대해 가졌던 매혹과 거의 흡사하다.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의 기치 아래 일본인이 주축이 되어 건설된 만주국에 상응하여, ‘대아세아주의’의 기치 아래 건설될 화북 자치정부는 조선인이 중심이 되어 구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상사적 전회를 대중적 감각 속에 서사화한 것이 바로 『사변전후』인 셈이다.

IV. 맺음말

한설야의 『대륙』이 1940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새로운 동아시아 신질서 구상으로 제기한 동아협동체론을 소설화한 것이라면, 『사변전후』는 중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제시된 유토피아적 광역권을 소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의 경우 국가권력이나 자본을 대신하여 이 같은 유토피아의 실현을 담당하는 주체가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에 비해 『사변전후』에서는 그 주체가 만주 마적 출신의 조선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변전후』가 사실주의적 현실 재현을 표방하는 본격소설이라기보다는 대중 서사물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 지식인 일부와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만주와 대륙에 대한 판타지를 재현하

21) 요네타니 마사후미·조은미 역, 2010, 『아시아/일본 :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하다』, 그린비, 159~162쪽. 한편, 중일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제시된 고노에 내각의 ‘동아 신질서론’(1938.11) 선언은 대아시아주의, 경제블록론, 동아연맹론, 동아협동체론 등 다양한 구상을 낳았는데, 그 중 이시하라 간지에 의해 주창된 동아연맹론과 오자키 호쓰미의 동아협동체론은 일본 제국주의 비판 및 중일 제휴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고 있는 이 작품은,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최서해나 이기영, 이태준 등의 만주를 재현한 소설사의 전통을 이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와 마적에 대한 대중들의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 1920-30년대의 딱지본 소설의 전통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변전후』는 중원을 무대로 한 전대의 영웅소설이 마적이 횡행하는 만주로 공간을 확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 서사로서 대중들에게 소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1960년대 만주 웨스턴의 전사(前史)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윤백남, 「사변전후」, 『매일신보』, 1937.1.1~1938.5.2.
 윤백남, 1940, 『사변전후』, 영창서관
- 고명철, 2008,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서사」 『한국문학논총』 49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민족문학사연구』 24
 김재용, 2003, 「새로 발견된 한설야의 소설 『대륙』과 민주 인식」 『역사비평』 여름호
 백두산, 2013, 「식민지 대중문화의 기획자」 『윤백남 선집』, 현대문학
 서영인, 2010, 「만주 서사와 (탈)식민의 타자들」 『어문학』 108
 _____, 2009, 「만주 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 : 이기영, 한설야의 만주 서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小島普治·박원호 역, 1992, 『중국근현대사』, 지식산업사
 손유경, 2009,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42
 요네타니 마사후미·조은미 역, 2010, 『아시아/일본 :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윤대석, 2006,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이경재, 2010,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소명출판
 이시카와 요시히로·손승희 역, 2013, 『중국근현대사 3, 혁명과 내셔널리즘』, 삼천리
 이형선, 2012, 「‘교양’ 식민화된 제국 국민, 그 계층 질서의 척도—한설야의 『대륙』 『인문과학연구논총』 33
 정종현, 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28
 _____, 2007,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33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개정판), 동아대학교출판부
- 内田尚孝, 2006, 『華北事變の研究 : 塘沽停戰協定と華北危機下の日中關係 一九三二~一九三五年』, 東京 : 汲古書院
 渡邊龍策, 1964(2004), 『馬賊 : 日中戰爭の側面』, 東京 : 中央公論社
 澁谷由里, 2004, 『馬賊で見る「滿洲」 : 張作霖のあゆんだ道』, 東京 : 講談社
 坂野良吉, 2011, 「‘華北事變’史をめぐる諸問題日中全面戰爭の淵源」 『上智史學』 56

■ Abstract ■

The Manchurian Bandits in Modern Korean Novel : Focusing
on Yun Paeknam's *Around the Incident*

Seo, Jae-Kil

This paper examines the desire and the un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 colonial Korea, by explor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Manchurian bandits in *Around the Incident*, the popular novel written by Yun Paeknam. This novel attempted to describe both the legitimacy of Manchukuo and the necessity for self-government in Huabei, the North China, by depicting the Korean bandits who took an active part in the area from the Manchurian incident to the Sino-Japanese war in the 1930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is novel is when the bandits of Manchuria attempted to move to Huabei after the Manchukuo had been built and also tried to establish self-government there unsuccessfully. It appears to be a fictional reproduction of the maneuver for the separation of Huabei from China through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Kwantung Army that tried to build another puppet state in Huabei similar to Manchukuo. The protagonist Wang Myoung and his party, who had once been mere Manchurian bandits, begin the “revolution from the top down,” with the help of Qingbang, the Chinese traditional gangster, regarding Huabei as a possible space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political ambition in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f East Asia. The Korean bandits centering Wang, who had once been a socialist, were set up as pioneers leading both the Japanese and the Chinese to begin the revolution under the banner of Great Asianism as Manchukuo had been built by the Kwantung Army. It also shows Korean intellect's fascination and ideological turn towards the vision of the utopian Asianism, which was suggested by the

Japanese socialist in the outline of Asia against western imperialism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However, this ideology of Great Asianism lacked both the sense of imperialism/colonialism, and the sense of th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Key words : Yun Paeknam, *Around the Incident*, Manchurian bandits, self-government in Huabei, Great Asianism